

정부혁신전문가 초청 오찬간담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동안에 정부에서 정부혁신을 책임지고 앞장서서 추진해 주신 공무원들, 그리고 학자로서 배우고 연구한 학문적인 업적을 가지고 정부혁신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학자들, 또 연구소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제가 초청한 것은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뜻이 야 간절하지만, 그리고 또 제가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혼자서 다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할 줄 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정부혁신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진보를 이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혁신 상당히 많은 진보 이뤘다

아쉬운 것은 혁신, 혁신 얘기하면서도 구체적인 혁신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우리 한국에 언론이랄지, 또 국민들의 여론이랄지 뭐 이런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본시 이런 일이 그렇게 눈에 많이 띄는

일도 아니고 각광받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제도의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또 조금 더 많이 할 수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만해도 많이 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자부심을 가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 젊은 학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정말 실력 발휘를 해 주셨어요. 로드맵을 바로 잡아줬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제대로 안 가는 거 같아서 답답했을 때 또 다시 한번 길을 열어서 혁신이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연속적인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착시켜 준 것도 여러 학계 여러분들의 도움입니다.

공무원들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본인이 하는 것은 그런 대로 따라올 수 있지만 안 따라올라 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야 하니까 아마 혁신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까지 끝까지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전 과정에서 혁신이 제도화 · 일상화 되어야

저의 희망은 그만해도 이제 어떤 조직의 통폐합이라든지,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수준의 개혁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의 전 과정 속에 혁신이 제도화 되고 혁신이 또 일상화 되는 이런 것으로 가야 앞으로도 혁신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계속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다가, 가다가 슬그머니 멈추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조금 더 요령이 있었으면 아마 한 1년쯤은 더 시간을 단축해서 정말 그 혁신이라는 문화를 조직에 완전히 정착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시험공부 해 보면 항상 하루가 부족하지요. 뭐 이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쉬움이 그렇습니다. 희망은 계속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혹시 혁신한 사람이 부처에 찍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능력 있는 분들이어서 그럴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부처 내부에서 혁신의 동력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인자들이 돼 주시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크게 생각해 보면 학계에 계신 여러분들께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공부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더라도, 그것도 지금도 이제 민영화의 논리라든지, 작은 정부 논리라든지,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만들어 낸 사상입니다.

5년 동안 싸웠지만 ‘작은정부가 좋은정부’ 라는 관념 못 바뀌

저는 일면의 타당성은 있지만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작은 정부 한마디가 갖는 위력이 원채 커서 5년 내내 투쟁을 했는데도 국민들이 아직도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하는 이 관념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민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영화도 이 작은 정부의 일환이지요. 지금 규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어떤 성장이든 진보든 규제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고리가 규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아니거든요. 5년 내내 저도 규제가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저 혼자만 씨름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다 이렇게 의논하면서 또 심지어는 체계하고 같이 팀을 만들어서까지 규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지만 규제는 것을 숫자로 다루는 그런 사고를 우리가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도 그냥 포괄적으로 규제라고 얘기해 버리는 이 수준을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어느 정부에서 먼저 그런 걸 하고, 그걸 이론화해서 정리하고,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바람이 센 학자들이 이걸 채택해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생긴 세계적 유행이거든요? 아무리 누가 연구해 가지고 아니라고 해도 이름의 위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저지해 낼 수가 없는 거센 바람입니다. 소위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런 바람은 학계에서 만들어냅니다.

세종대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세종대왕이 위민정책을 했다, 민본정책을 하셨다 했는데 선정을 베푼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유교적 지배 질서에 의문을 가지고 유교적 통치 질서가 아닌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많은 정책을 하셨고, 그래서 정말 빛나는 업적을 남기셨는데 세종 돌아가시고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정은 하셨으되 역사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공자님은 제자들을 잘 길러 가지고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우리 조선은 그것 때문에 망했지만은 그 질서 때문에, 그 질서가 너무 오래 버틴 바람에 초기엔 그것이 우리 조선의 번영의 힘이었지만 말기에 와서는 그것이 우리 조선의 발목을 잡았던 사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배 질서를 세종대왕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자가 이긴 거지요.

저는 학문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만든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죠. 조선이 혁명을 했지만 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역성혁명을 해서 왕조를 바꿨지만 결국 고려 말에 사대부들의 사상이 조선을 지배했지, 이성계 후의 조선 왕가가 조선을 지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더라고요. 앞으로 혁신

을 계속 할 거냐. 우리 한국에서 제대로 된 혁신을, 수준 있는 혁신을 제대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저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결국 좌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 부처주의’ 로 가야 하는지 어느 미디어에도 안 나와

요즘 정부 통폐합, 부처 통폐합하거든요? 제가 요새 신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신문을 잘 안 봅니다만 그래도 그 발췌해 주는 것은 봅니다. 보는데, 대 부처주의, 소 부처주의, 말하자면 다수 부처주의와 대 부처주의가 어디에서, 어떤 근거에서부터 유래했으며 어떤 역사적 사례가 있으며,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됐는지 저는 적어도 우리 미디어에서는 그런데 대한 아무런 설명을 찾아본 일이 없습니다. 왜 대 부처주의로 가야 하나, 어느 나라가 갔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KBS, MBC, SBS, YTN 다 봤는데 안 나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학계에 계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글은 좀 많이 올리고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에서 제가 간접적으로 본 기사는 약간 그런 데 대한 언급이 있었던 중앙일보의 기사 이외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국민들은 모르거든요. 저게 뭘지, 뭘 의미하는지.

여하튼 우리의 혁신이라는 것이 대단히 논리적이고 또 검증된 안정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준이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학계 여러분들이 크게 장기적으로 봐서, 또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혁신문제에 관한 한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도 저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냥 투표는 저한테 하더라도 개별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뭐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건 좀 마음에 드는데 어떤 건 영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드는 것도 100점 안 하고, 60점쯤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혁신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동안의 경험이, 또한 그 학문적 발전에 조그마한 기회가 되거나 기회가 됐기를 바라구요, 앞으로도 우리 이 문제 가지고 정말 얘기 좀 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부를 떠납니다만 정부를 떠나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시민이지요. 아무도 시비를 안 거는 공부를 좀 하는 일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고 같이 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 기간이 너무 보람 있어서 마치고도 아직 그 검증하지 못한… 우리가 한일 중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하고 또 도움도 좀 받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가끔 학회 같은 거 있을 때 한 번씩 저도 끼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청중으로 플로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시고요, 또 그런 기회에 끼워주시고 저도 혁신학과에 한 사람 중 이렇게 혹시 무슨 뭐 학위 같은 거 하나 주시면 더 좋고요. (일동 웃음)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쨌든 마무리 하면서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이 마무리와 관계없이, 또 더 좋은 출발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마무리발언 요지

참여정부는 혁신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위원회와 부처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고, 2003년 하반기에야 비로소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이론적 검

증과 절차적 숙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민간에서 검증된 변화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정부의 변화속도를 적절하게 관리했고, 특히 정부혁신에 ‘학습’ 개념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또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직 개편 등 하드웨어 혁신보다는 ‘프로세스와 시스템 혁신’, 공직사회의 관행과 문화까지 바꿀 수 있는 ‘소프트웨어 혁신’에 집중했습니다. 이론을 검증하고 절차와 토론을 거치고 변화관리기법과 IT기술을 접목시킨 것은 ‘과학적 혁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혁신을 공직사회에 체질화·내재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 ‘지속적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써 혁신의 열기가 참여정부 5년 내내 지속되었으며, 혁신 이론과 사례 관련 서적이 쏟아지는 등 학문적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보람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앞장서는 것이 대외내적으로 빛이 나는 일이 아니었는데도 열성적으로 참여해준 전문가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